

보도시점 : 2024. 7. 10.(수) 11:00 이후(7. 11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7. 10.(수)

## 용산어린이정원, 방문 하루 전 예약·당일 입장 가능해진다

- 사전 방문예약 기한 단축(6일→1일 전) · 당일 현장 방문도 가능
- 출입시설·주차이용도 개선하여 안전과 편의 제고
-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 및 체험 교육 콘텐츠 다양화

-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보다 편리해진다.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, 예약없이 현장을 방문 하더라도,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 체계를 개편하는 등 방문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'23년 5월 4일 국민들에게 개방하였다.
  - 개방 이후 1년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면서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, 국민 휴식·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- 다만,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과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.
  - 이에 따라,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, 사전 예약체계, 번거로운 출입절차,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예약 체계를 개편하고, 출입시설과 주차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① 사전 방문예약 기한을 기존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, 예약을 못 한 당일 현장 방문객의 경우에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.

- 방문 하루 전 오후 3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(yongsanparkstory.kr)에서 사전 예약하면 입장확인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.
- 예약없이 현장 방문한 경우에도, 현장에서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에 확인 문자를 받고 입장할 수 있다.

\* 재방문자의 경우, 기존과 같이 대기 없이 당일 입장 가능

| 현 행              | 개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사전 예약) 방문일 6일 전 | (사전 예약) 방문일 1일 전<br>*1일 전 15시까지 예약   |
| (당일 현장방문) 입장 불가  | (당일 현장방문) 입장 가능<br>*90분 이내 확인절차 후 입장 |

② 방문객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원에 오갈 수 있도록 출입 시설과 주차 이용을 개선한다.

- 주출입구(신용산역 인근)의 경우, 현재 출입구 앞 보도가 협소하고, 차량 출입문만 있어 방문객들이 보차 구분없이 입장하고 있으나, 9월까지 보도를 확장하고, 보행자 전용 출입문을 추가 설치한다.
- 부출입구(국립중앙박물관 뒤편)는 출입안내센터 시설이 협소하여 주말이나 행사 시에 대기줄이 길고,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나, 9월까지 안내센터를 확장하여 신속한 출입확인을 지원한다.
- 또한, 현재 정원 내 도로 등 여건 상 방문객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나, 행사·스포츠대회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경우 단체버스 주차를 허용하고, 이외에도 주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



□ 이와 더불어,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공간과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생태전시관(환경부), 보훈전시관(보훈부) 등 어린이 전시관을 오픈하였으며, 키즈라운지(국토부), 어린이숲체험원(산림청), K-콘텐츠체험관(문체부)도 연내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
○ 현재 여름을 맞아 정원 내 분수정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(~9월), 가을철 어린이 아트페어, 겨울 별빛 야간동행 프로그램 등 계절별 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2년차에 접어든 용산어린이정원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정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의 문턱은 낮추고, 방문객 만족도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<br>공원운영과 | 책임자 | 과 장 | 정승수 (02-2131-203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민기 (02-2131-2036) |



#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예약 변경 안내

**현행**

(사전 예약) 방문일 6일 전

(당일 현장방문) 입장 불가

➤

**개선**

(사전 예약) 방문일 1일 전  
\*1일 전 15시까지 예약

(당일 현장방문) 입장 가능  
\*90분 이내 확인절차 후 입장

- 정원 방문 시,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.
- 사전 방문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.  
( [www.yongsanparkstory.kr](http://www.yongsanparkstory.kr) )

- 변경된 내용은 **7월 11일부터** 적용됩니다.
- 외국인은 종전과 같이 방문일 기준 1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.
- 당일 최초 현장방문 등록은 **15시 (토요일은 18시)에 마감**됩니다.
- 최근 1년 이내 방문객은 당일 현장등록 후 즉시 입장이 가능합니다.



용산어린이정원